

컴퓨터보안 특강#2

국가정보보호백서로 보는 최신 보안 이슈 특강

22100579 이진주

이번 특강에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오신 김원호 동문 선배님께서 오셔서 정보보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. 그 중에도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이버전에 대한 것이었는데, 특정 국가의 네트워크에 피해를 가하여 대상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사이버 심리전, 첩보활동, 랜섬웨어, 디도스 등이 해당된다. 얼마 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러시아-우크라이나전의 발발 전에도 러시아군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한다. 전초전이자 군사적 공격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다. 보안이 단순한 개인을 넘어 산업과 국가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느껴졌다.

특히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딥페이크로 만든 대통령의 항복 영상을 뿌리는 등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진다. 우리가 배우고 다루는 기술들이 세상에서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늘 되새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늘 양지에만 영향을 주지는 않기에, 발전되는 만큼 악용되는 사례도 다양하고 넓은 범위로 뻗어 나가기 마련인 까닭이다. 실제로 과거 널리 유행했던 랜섬웨어를 서비스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업체가 오늘날 존재하는 상황을 보면 그 위험성이 더욱 실감된다. 아직 학부생이나, 더욱 다양한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언젠가 나의 전문 분야를 정하게 되었을 때 더욱 넓은 시야와 관점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